

엑스포70한국관 : 한국관은 Symbole Zone을 통하여 입장한다. 한국관을 관람키 위하여 줄서 있는 관객

김수근 선생의 작품세계

(대판 Expo70 한국관을 중심으로)

조구현 /

신세대 종합건축사사무소

Memory of the Man of Blessed
Cherishing the Memory of
Deceased Mr. Kim, Swoo Geun
by Cho, Goo Hyun

약관20세의 나이에 건축에 뜻을 품고
도입하여 수업하고 29세의 청년이 되어서는
국회의사당 현상설계(1960)에 1등 당선
하여 금의환향하여 고국에서 건축에의
의지의 나래를 피우기 시작 하면서
30세에는 워커힐 힐탑바(1961), 32세에는
자유센터(1963), 36세에는 부여박물관
(1967), 39세에는 Expo'70 한국관(1970)
등을 설계하면서 작품에 몰두하셨고
급기아는 외국에 눈을 돌려 이란의 엑바탄
주거단지(1975), 수단국의 영빈관(1977),
말레이시아의 시라와크 주립 sport
complex(1985), 등 주옥과도 같은 작품
제작에 몰두하시던차 어느날 갑자기 병마와
싸우신다는 소식을 들은지 불과 2개월만에,
그분의 의지라면 얼마든지 극복하겠지.
설마, 설마 하던일이 드디어 벌어지고
말았다. 별세하신 것이다.
그분을 모셔놓은 서울의대 영안실에는 평소
그분을 아끼고 따랐던 여러분들이 오셔서
애도해 주셨고 또 수많은 조화(弔花)도
답지하여 있었다. 그 조화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일본의 저명한 건축가 단게 겐소(丹下
健三) 씨의 것이었다. 이분의 조화를 보는
순간 김수근 선생의 연구소에 10여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인상깊었고 나에게 많은
감명과 배움을 주었던 Expo'70의 한국관
(韓國館)을 회상케 하였기 때문이다.
본인이 한국관의 설계·감리의 참여를
위하여 일본에 체재시 대판(大阪)
EXPO'70의 Master Plan 작성자인
단게 겐소씨가 "EXPO'70순방"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건축사회, EXPO'70본부
요원 및 내빈들과의 TV 좌담회에서 설계
Idea로는 한국관과 Canada관이 돋보이며
한국관은 새로운 각도의 설계시도라고
극찬할 때의 흥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관은 4,150㎡의 대지위에
\$ 1,200,000의 예산(실내장식 및 전시
비용 제외)으로 건설한 것으로 한국관의
북측에는 중국관, 남측에는 불란서관,
서측에는 캐나다관이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압도하기 위하여는 일단, 대지
전체를 덮고 그와는 별도로 그속에 전시동
(展示棟)을 넣은 비행기의 격납고와도
같은 형태이었다.
이 대지를 덮는 형태는 직경 3.7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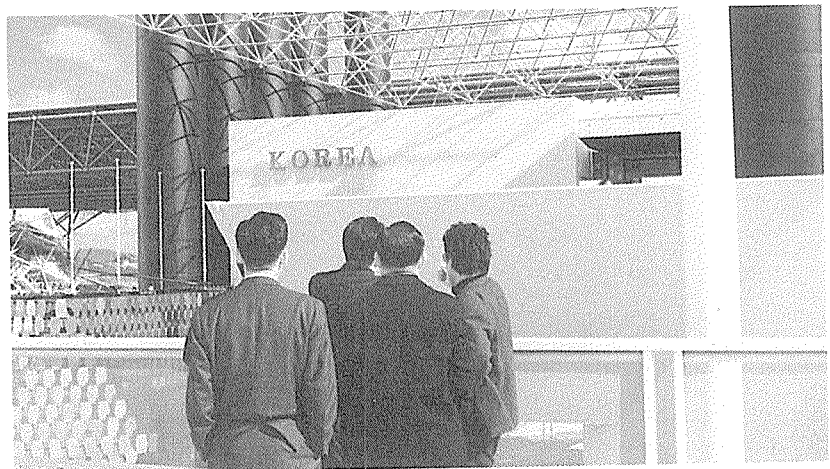
고30m의 원주(圓柱)를 북측에 8개 남측에 7개를 각각 일렬로 배치하고 그위에 높이 4.24m 폭 35m에 길이 66m의 트러스(Truss)가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의 형태로 덮여지는 것이다. 일단 대지전체를 덮고난 후 구성된 공간의 내부에 또하나의 공간 즉, 2개의 전시동(4층건물인 주전시동(主展示棟)과 2층 건물인 부전시동(副展示棟)과 랜딩 플랫폼(Landing Platform; 일명 종각)을 두어 무한한 우주공간속에 또하나의 소우주를 구성함으로써 볼륨을 강조함은 물론 약진 한국과 세계와의 조화를 실감토록 배려되었다.

당시 한국관의 주제가 “좀더 깊은 이해와 우정”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와도 합당한 공간구성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주전시동은 4층에는 과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3층에는 당시 한국의 성과를, 2층에는 관리실용, 1층은 주전시실(Hall)로서 고전과 현대무용을 공연하였다. 또하나의 부전시실(약900㎡)의 1층은 전기 및 기계실, 2층부분은 한국의 미래상을 전시하였다.

이 미래관(未來館)은 인공의 연못(池)위에 거북선(龜船)의 모양을 하고있어 선생은 미래관을 보고는 항상 「입진왜란때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한국을 침략키 위하여 발전한 항구가 바로 대판항(大阪港)인데 나는 지금 거북선(龜船)을 대판에 상륙시켰다. 참으로 통쾌하다」라고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또, 랜딩 플랫폼에는 실물크기의 에밀레종이 매달려있어 입장객들이 에밀레종소리를 들으면서 에스캐레이터를 이용, 4층의 과거 전시관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선생은 이에 대하여 「입장객에게 에밀레종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불어넣어 주고 또, 빈공간을 소리로 채워줌으로써 삼중의 효과를 노린다」고 말하던 것이 또한 생각난다. 당시 한국관의 랜딩 플랫폼에 설치되었던 에밀레종은 조각가이며 현대미술관의 관장이었던 김세중씨가 제작한 것으로 김수근선생이 작고하시고 20일도 못되어 타계하셨으니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한번 생각해한다. 당시만해도 청년이었던 두 분이 다 고인이 되어있지않은가? 한국관의 건설당시 선생과 나는 시간이



Symbole Zone에 서서 한국에서 시찰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한국관을 설명하고 있는 청년건축가 김수근 선생(좌측에 박서보 교수가 보인다. 그는 미래관의 작품에 참가했었다.)



EXPO'70 한국관 정면 화요광장(火曜廣場)의 고가도로상에서 한국관을 설명하고 있는 김수근 선생(손으로 가리키고 있는분) (KOREA라고 표시된 부분이 주전시동. 그앞이 Landing Platform 좌측 하단의 갑옷과 같은것이 거북선형태의 미래관인 부전시동).

있을 때면 가끔 영화관엘 가곤 하였는데 언젠가는 영화가 끝나고 나오다가 「영화가 끝날 때가 되어도 재미있는 장면이 안나오면 초조해지는데 요즘 나는 나의 인생에서 그런걸 느끼게 되네」 하시던 때가 선생의 나이 40이되는 해였고 50이되던 해에는 「이제 내나이 50이되니 이제서야 건축이 무엇인지 겨우 어렵듯이 알겠네」 하시던 말이 생각난다. 인생을 선생과같이 그렇게 초조하고도 알뜰하게 여미고 저머가며 사신분도 없을 것이다. 선생이 귀국한 이래 25년간의 작품을 돌이켜 볼때 초기작품은 C.I.A.M.적 성격을 띠어 기능주의적이고 입체주의적 성격을 많이 띠우다가 때때로는 돌발적으로 실험론적 건축작품이 보이는가 하면 레이트 모던(Late Modern)적 성격을 거쳐 최근에 와서는 포스트 모던(Post Modern)의 분야에 심취했던 흔적이

보인다. 선생의 최근의 작품 경향을 볼때 단의적(單意的: Uni-Valent)인것을 피하고 다의적(多意的: Multi-Valent)인것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음직 한것은 최근의 교회작품을 미루어 짐작케한다. 뿐만아니라 선생은 신고전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진 작품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선생의 작품들을 문화사적 측면에서 조명해 볼때 선생은 빠른 템포로 건축의 여러주요나 형태들을 수용하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며 선도해 나아갔던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만일 선생이 지금현재도 건재하여 계시다면 어떤 성격의 작품을 해나갔을까 매우 궁금하고 기대되는 것이나 선생은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선생의 주옥과도 같은 작품을 다시는 대할 수 없게 된것이 자못 안타까울 뿐이다.